

# 국힘 혁신위 압박에 중진·친윤 “지역구 사수”·무응답

### 장제원·주호영 “서울 가지 않겠다” ...인요한 “기다릴 것” 당 지도부 난감...김기현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중진·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의 불출마·수도권 협지 출마'를 권고한 지 열흘이 넘도록 당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4일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후 기자들에게 “저는 100% 확실한다. (중진·친윤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 위원장은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 등 총선 불출마 및 협지 출마 권고 대상을 특정해 명단을 작성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인 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중진들이 혁신위 권고에 지역구 사수 의지를 보이며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압박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도 용퇴 권고를 거둬들이는 생각은 없다는 의중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불출마·협지 출마 권고 대상자들은 여전히 목록 부당하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윤 의원만이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불출마든 협지 출마든 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고, 다른 의원들은 오히려 지역구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지난 11일 지지자 모임인 여원산악회 15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일방적인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5선의 주호영 의원은 지난 8일 대구 수성구정에서 “혁신위 발족 초기에 혁신위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조기 종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위원 간에 오고 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13일 시점에서 혁신위 활동을 조기 종료하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도 없었고 그와 관련된 합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혁신위가 조기 종료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조기 종료설이 흘러나오는 것부터가 ‘압박성 메시지’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혁신위와 친윤·중진들의 기 싸움 속에 지도부는 난감한 모습이다. 당장 지도부 중에서도 혁신위 불출마·협지 출마 권고 대상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김기현 대표도 지난 9일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며 당장은 ‘결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중진·친윤 의원들이 ‘결단’을 내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혁신위 내부에서 조기 해산 의견이 나왔다는 것에 대한 불만의 기류도 감지됐다.

이날 당내에서는 혁신위의 불출마·협지 출마 권고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저도 혁신위원장 개인 생각인지, 대통령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건지 유심히 봤는데 제 결론뿐 아니라 당내 다수 중론은 ‘대통령 주문’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윤해관이 사실상 없어지는 단계에 왔다”며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당에서 아무도 그분을 윤해관으로 안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인 위원장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희생 대상으로 언급한 중진들로부터 응답이 없다는 질문에 “절대 이름은 거명 안 했지만, 분명히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이 빨리 발전하는 것은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지만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라는 표현을 동원해 중진 용퇴론을 압박했던 것에 대해선 “교수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썼다고 집사람에게 야단을 맞았다”면서도 “매는 여론이고 여론은 국민이다. 그 매는 (총선 때) 국민의 투표로 이어진다. 그렇게 복잡한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총선 불출마 및 협지 출마 권고 대상 명단과 관련해 “무슨 리스트(명단)인지도 모르겠다”며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개인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나는 지역구에 많은 유혹받았지만 안 간다”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4일 오전 제주도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위태봉안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4일 오전 제주도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위태봉안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尹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서 ‘북-러 협력’ 대응 공조”

### “北 정찰위성, 핵 투발 고도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 위협성을 국제사회에 경고하고, APEC 정상들과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APEC 참석을 앞두고 14일 공개된 AP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주말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 여러 정상들을 만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여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태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지역 최대 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일 정상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와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조율 중이다. 이처럼 다자·양자 정상 간 만남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의 위협성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총 8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이며 (한미) 동맹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우리의 강력한 대북 억제 역량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시도 중인 ‘군사정찰 위성’ 발사의 주된 목적을 ‘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사실상 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한다”며 “강화된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갖춘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잇달아 한국을 찾은 점을 환기하며 이들의 방한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APEC 정상회의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한국과 미국·일본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공개된 미국 국무장관 일정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장관은 14일 오전(한국시간 15일 새벽)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

코 일본 외무상과 만날 예정이다. 세 장관은 9일말 유엔 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약식 3차 회의를 한 지 2개월만에 다시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됐다.

한미일 장관들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합의 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일 북러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북한의 대

러시아 무기 제공과 그 대가로 북한이 획득할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적인 ‘위성’ 발사 시도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더불어 미국 입장에서는 오는 15일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 측에 의제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국힘 “1기 신도시법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

국민의힘은 14일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담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법)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석하게도 지난 3차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

고 있다”며 “다행히 최근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전라남도 JeollaNamdo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증사자의 **존중 캠페인**

사회복지증사자를 향한 **모욕, 조롱, 비하를 멈추면**

**Stop Start**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증사자를 배려하는 실천방법

- 사회복지증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해주세요.
-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가지며 서비스를 받을 때는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 반말, 욕설, 희롱,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언행을 부탁드립니다.
- 나의 부당한 요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